

# 국민연금 수급액 차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의 차이 분석

## Difference Analysis of Life Satisfaction and Successful Aging on Difference in National Pension Receipt

유지연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i-Yeon Yu(hades-scythe@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연금 수급액 차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그 후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급액의 차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성공적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수급액의 차이는 삶의 만족도에선 유의미하였으나, 성공적 노후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국민연금 수급이 경제적 안정감을 주어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기반이 될 수는 있으나 성공적 노후로 이어지려면 여가선용과 같은 사회적 지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액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며, 수급액만으론 생활이 불안정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수급액의 만족도를 높이며, 여가선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국민연금 | 수급액 차이 | 삶의 만족도 | 성공적 노후 |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difference in national pension receipt on life satisfaction and successful aging in people aged 60 or over, and then analyzed influence factors on them. As a result, The difference of receipt affected life satisfaction and successful aging. This means a large receipt is related to high life satisfaction and successful aging.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 also showed the difference of receipt was significant in life satisfaction, but wasn't significant in successful aging. National pension receipt can increase life satisfaction by providing financial security, but for successful aging, social supports like good use of spare time are needed. Also, currently satisfaction with national pension receipt was low and receipt wasn't enough to stabilize their lives. Therefore, a political plan for improving receipt satisfaction and living a stable life through good use of spare time will be required in future.

■ keyword : | National Pension | Difference of Receipts | Life Satisfaction | Successful Aging |

## I. 서론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의 삶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은퇴와 은퇴 준비과정, 은퇴 결정과정 등에 치중되었던 연구들은 최근에 노년기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령자의 삶의 질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 것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노년기의 삶이 새롭게 인식되고, 어떻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한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노년기 생활에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태 즉 성공적 노후의 개념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1].

그렇다면 세계에서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으나 은퇴 시기엔 변함이 없어 노후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득상실로 이어져 빈곤상태로 빠질 위험이 높다. 이를 증명하듯 통계청(2014)에서도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혀, 노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소득보장의 영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익숙해질 만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긴 노후시기를 보내게 됨에 따라 경제적 상황이란 건 성공적 노후를 보내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경제적 여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우울, 고독, 불안 등에 시달리며 삶의 질은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감 저하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1]. 더불어 통계청(2014)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긴 노후시기를 지탱해줄 경제적인 수단, 즉 노후소득보장의 주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져 장기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1988년에 처음 도입되어 꾸준히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1인 이상 사업에 종사할 경우 모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수급률 역시 증가하여, 2008년에 가입 년 수 20년이 됨에 따라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하였다. 국민연금 통계연보(2014)에 따르면 50대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60-70대가 대부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고령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고령자의 주요한 소득보장의 원천으로서 역할로써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주제로 하여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를 알아보는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기존의 연구들[1-6]은 첫째, 분석 대상을 고령자로 한정하지 않았다. 중년층까지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기에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및 삶의 만족도가 고령자에게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둘째, 국민연금의 수급여부에 따른 삶의 효과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온 원인 중 하나로 연금의 수급여부만 고려했을 뿐, ‘연금의 수급액’을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3][5].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수급 받는 액수가 적다면, 국민연금 수급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그 영향으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금까지 국민연금 비수급자와 수급자 간에 대한 차이를 보아 국민연금 수급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사이에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 본 논문은 전무하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국민연금이 고령자에게 삶의 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대상을 고령자로 한정하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 수급을 통한 삶의 만족도의 영향과 더불어 성공적 노후도 함께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수급효과만을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지적한 대로 수급액을 고려하여 수급을 받고 있는 수급자 간의 국민연금의 효과를 실제적으로 살펴보아 정책적 방안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수급액의 차이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의 삶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국민연금 수급액 차이

가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삶의 만족도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의 하나로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또는 생활 만족도 등의 용어로 일컬어지고 있다.

삶의 만족도란 개념을 처음으로 정의한 Neugarten et al.[7]은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환경에 잘 대응해 나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8]. Chokola[9]는 행복에 대한 개인의 욕구와 목적의 조화로운 정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노년기 생활 적응, 정신건강, 성공적 노화 등의 주요한 지표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삶의 경험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10].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삶의 만족도란 포괄적이고, 함축적이며,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지향이나 가치 기준에 따라 다르게 되고, 개인 스스로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노인의 삶의 만족도라는 것은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충족의 합치 여부에서 오는 주관적 만족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인 여건뿐만 아니라[11], 생활의 역사를 통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이거나 노인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삶의 만족이라고 볼 수 있다[12]. 따라서 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전반에 걸쳐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생활해나가면서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감, 즉 단순한 물질적 풍요 이상의 포괄적인 심리적인 만족감을 의미하는 개념이다[13].

### 2. 성공적 노후

성공적 노후는 오래 전부터 중요한 관심 영역이었다. 성공적 노후는 인생만족, 사기, 심리적 안녕, 정신적 건강으로 정의된 척도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14]. Babara는 성공적 노후를 역동적이고 긴 기간 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과정과 개인을 둘러싼 모든 환경(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변화라고 제시하였으며, 노후는 개인의 여러 가지 측면인 신체, 인지 능력, 사회적 자아, 영혼의 자아까지도 포함한다고 하였다[15]. Rowe and Kahn[16][17]은 성공적 노후의 구성요소는 3가지로 질병과 장애의 예방, 높은 인지적, 신체적 기능, 적극적 사회활동 참여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문화적 차이가 있음으로 고려하여 김미혜·신경림[18]은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후의 성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성공적 노후는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기초하는 것이며, 특히 한국인들의 생활문화, 라이프스타일, 가치관은 서구인들과 많이 다르다[19]. 따라서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성공적 노후와 관련된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15]. 그리하여 구성된 문항은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 통제를 잘 하는 삶이다.

## III. 연구 방법

###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분석 자료는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4차 본 조사 자료와 4차 부가조사 자료이다. 4차 본 조사 자료에는 삶의 만족도 문항이 실려 있고, 4차 부가조사 자료에는 성공적 노후의 문항이 실려 있어, 이 두 자료를 합쳐서 쓰고자 한다.

분석대상으로 60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중에서도 노령연금 수급자만으로 한정하여 총 688명을 분석하였다.

## 2. 변수의 선정

종속변수는 총 두 가지로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이다.

삶의 만족도는 총 10개의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는 이 문항을 4가지로 다시 분류하였다. 첫 번째 분류는 경제적 만족도로 집(주거환경), 경제적 상태, 직업(일)으로 총 3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분류는 신체적 만족도로 건강으로 총 1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분류는 사회적 만족도로 이웃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부부생활, 여가활동으로 총 5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분류로 전반적 만족도로 위에 있는 문항을 전부 포함시켰다.

성공적 노후의 삶은 총 4가지로 분류되며, 관련 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분류는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삶(13문항)'으로 노년기에도 앞으로의 남은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두 번째 분류는 '자녀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8문항)'으로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결혼해서 화목하게 살며 경제적으로도 걱정을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 분류는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3문항)'으로 부부 모두가 건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마지막 분류는 '자기 통제를 잘 하는 삶(6문항)'으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20].

종속변수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1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는 '매우 그렇다'로 분포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높은 것으로,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독립변수는 국민연금 수급액의 차이이므로, 비교분석을 위해 집단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 기준은 분석 대상의 국민연금 수급액의 중위값 50%로 이하면 <집단 1>로, 초과면 <집단 2>이다. 수급액의 기준은 21만원이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연령, 교육수준, 지역, 혼인상태, 경제활동, 월 소득, 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이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먼저 분석 대상자를 수급액 차이로 집단을 2개로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가 차이가 있는지 차이검증을 하였고, 그 후 수급액 차이가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계수(VIF)의 경우 모두 10을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가 모두 0.1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IV. 분석 결과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두 집단 모두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평균 연령은 집단 2가 65세로 집단 1보다 4세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상이 집단 1은 27%, 집단 2가 53%로 약 2배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수급액이 많은 집단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두 집단 모두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집단 2가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결혼은 두 집단 모두 기혼상태가 약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경제활동상태는 두 집단 모두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집단 1이 약 130만원, 집단 2가 210만원으로 약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다. 신체적 건강의 경우 평균적으로 집단 1이 2.95로 좋지 않은 편에 속하고, 집단 2가 3.32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은 두 집단 모두 신체적 건강보다 양호한 상태로 집단 1과 2가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은 가중치를 모두 적용하였으며, 자세한 것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수급액 차이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변수	집단 1 (N=383)		집단 2 (N=310)	
	%	Mean	%	Mean
성별	남	74	85	
	여	26	15	
평균 연령		69		65
교육수준	무학	12	4	
	초졸	35	24	
	중졸	26	19	
	고졸	21	38	
	고졸이상	6	15	
지역	도시	42	51	
	도, 농, 촌	58	49	
혼인상태	유배우자	81	90	
	그 외	19	10	
경제활동	예	56	61	
	아니오	44	39	
평균 월 소득		13,849		21,553
신체적 건강	나쁨	69	50	3.32
	좋음	31	50	
정신적 건강	나쁨	49	31	3.67
	좋음	51	69	

##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 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는 .4059로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상관관계

	삶의 만족도	성공적 노후
삶의 만족도	1	
성공적 노후	.4059***	1

\*\*\*p<.001

## 3. 수급액 차이에 따른 차이 분석

### 3.1 삶의 만족도 차이

수급액 차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신체적 건강 만족도를 제외하곤 전 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액이 많은 집단 2가 수급액이 적은 집단 1보다도 삶의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만족도는 집단 1이 8, 집단 2가 9로, 집단 2가 1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회적 만족도는 집단 1이 16.1, 집단 2가

17.7로, 집단 2가 약 1.6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집단 1이 30.5이고, 집단 2가 33.5로, 집단 2가 3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만 신체적 만족도만이 집단 1이 3, 집단 2가 3.29로, 집단 2가 약 0.29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은 가중치를 모두 적용하였으며, 자세한 것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수급액 차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삶의 만족도	집단 1	집단 2	F
	M(Std.err.)	M(Std.err.)	
경제적	8.098(0.245)	9.007(0.164)	9.51**
신체적	3.002(0.104)	3.29(0.084)	4.63
사회적	16.158(0.503)	17.747(0.193)	8.70**
전반적	30.542(0.818)	33.501(0.381)	10.74***

\*\*\*p<.001 \*\*p<.01

### 3.2 성공적 노후의 차이

수급액 차이에 따른 성공적 노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녀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을 제외하고는 전 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액이 많은 집단 2가 수급액이 적은 집단 1보다도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삶의 영역에서 집단 1이 42.8, 집단 2가 45.4로 집단 2가 2.6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의 영역에서 집단 1이 8.4, 집단 2가 9.8로 집단 2가 1.4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통제의 삶의 영역에서 집단 1이 21.5, 집단 2가 22.7로 집단 2가 1.2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녀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의 영역만이 집단 1이 27.9, 집단 2가 27.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본 분석은 가중치를 모두 적용하였으며, 자세한 것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수급액 차이에 따른 성공적 노후의 차이

성공적 노후	집단 1	집단 2	F
	M(Std.err.)	M(Std.err.)	
자기 효능감	42.853(0.472)	45.444(0.570)	12.25***
자녀의 성공	27.965(0.364)	27.417(0.553)	0.68
부부 동반자	8.479(0.259)	9.839(0.280)	12.77***
자기 통제감	21.587(0.235)	22.781(0.261)	11.59***

\*\*\*p<.001

#### 4. 수급액 차이에 따른 회귀분석

##### 4.1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수급액의 차이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수급액의 효과는 1.6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혼인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 경제활동상태로 유배우자일수록,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할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은 가중치를 모두 적용하였으며, 자세한 것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Coef.	(S.E)	t
CV	수급액 차이 효과	1.651	0.669	2.47*
	연령	-0.987	0.734	-1.34
	성별	0.626	0.962	0.65
	교육수준	0.349	0.315	1.11
	혼인상태	3.401	1.127	3.03**
	신체적 건강	2.339	0.764	3.06**
	정신적 건강	1.714	0.755	2.27**
	경제활동	4.447	0.672	6.62***
	가구 소득	2.750	2.140	1.28
_cons	33.869	2.192	15.45***	
R <sup>2</sup>		.196		
Adj R <sup>2</sup>		.184		
F		17.36***		

\*\*\*p<.001 \*\*p<.01 \*p<.05

##### 4.2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수급액의 차이가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수급액의 효과는 0.87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수급액의 차이가 성공적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경제활동상태, 가구 소득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유배우자일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은 가중치를 모두 적용하였으며, 자세한 것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성공적 노후 영향 요인

		Coef.	(S.E)	t
CV	수급액 차이 효과	0.874	1.313	0.67
	연령	-4.618	1.441	-3.2***
	성별	0.4631	1.888	0.25
	교육수준	1.224	0.618	1.98*
	혼인상태	17.962	2.212	8.12***
	신체적 건강	6.165	1.499	4.11***
	정신적 건강	0.891	1.482	0.6
	경제활동	3.826	1.319	2.9**
	가구 소득	0.000	0.000	3.59***
_cons	71.621	4.472	16.02***	
R <sup>2</sup>		.265		
Adj R <sup>2</sup>		.255		
F		25.78***		

\*\*\*p<.001 \*\*p<.01 \*p<.05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4차 자료와 4차 부가조사 자료를 통하여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자만으로 한정하여 수급액 차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 받는 두 집단 모두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수급액이 높은 집단 2의 평균 연령이 집단 1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집단 2의 가입시기가 집단 1보다 빠른 것을 보인다. 또한 교육수준은 집단 2가 고졸 이상의 학력이 집단 1보다 약 2배 많으며, 지역과 혼인상태는 두 집단 모두 도시에 거주하고, 유배우자인 확률이 높았다.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두 집단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비

율이 약 60% 정도 되었으며, 월 평균소득은 집단 2가 약 8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상태와 정신적 건강상태 모두 집단 2가 높았고, 두 집단 모두 신체적 건강상태보다 정신적 상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급액 차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건강상태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가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며 따라 수급액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후의 차이를 보면, 자녀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을 제외하고 나머지 3영역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에 따라 수급액이 많을수록 성공적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의 성공이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독립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서구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13]. 두 집단 사이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삶이었으며, 두 번째가 부부 간의 동반자적 삶이었고, 마지막으로 자기 통제를 잘 하는 삶이었다.

셋째, 수급액 차이가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수급액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혼인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 경제적 활동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후의 경우, 수급액의 차이가 성공적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액이 크거나 작다고 하여 노후생활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경제활동상태, 가구 소득으로, 성공적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인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와 성공

적인 노후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고령자의 소득보장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집단 모두 유배우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노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배우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동시에, 수급자의 성별이 대체적으로 남성이란 점에서 여성의 경우 본인이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것 보다는 배우자인 남성이 연금에 가입하여 수급함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여성 본인 역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적 곤란상태에 봉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둘째,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상태를 유지 및 준비를 위해 정확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집단 모두 국민연금을 수급 받아 일정 부분 소득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약 60%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 경제활동이 가능한 신체적 상태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길 바라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으나, 수급액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수급액으로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4차 부가조사 자료에서는 5점 Likert 척도로 수급액의 만족도와 수급액으로 충분한 생활일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 수급액에 만족하고 있는 비율은 집단 1이 27%, 집단 2가 34%였으며, 수급액으로 충분한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어선 집단 1이 18%, 집단 2가 23%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집단 1보다 수급액이 많은 집단 2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나, 수급을 받고 있는 과반수가 수급액에 불만족하며, 수급액만으로는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수급액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할 것이다. 그와 함께 현 시점에서 불충한 경제적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고령자에게 맞는 교육과 각각의 능력에 따라 가능한 근로를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나타났으므로 이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와 국가기관도 이 목적을 주목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4]. 특히 분석 대상인 고령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회적 만족도가 집단 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보아 가장 취약한 영역이라고 사료된다. 노후시기가 길어지게 됨에 따라 겪게 될 인간관계 축소에 따른 소외감이나 정서적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교육이 필요하며[15], 증가하는 여가시간을 능동적이며 생산적인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것은 수급액의 차이가 삶의 만족도와 달리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삶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여유감과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성공적 노후의 경우 각 개인의 인식에 해당된다. 수급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고, 적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삶에 충실하다고 느끼면 성공적 노후를 보낸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에서도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에 있어선 국민연금의 수급액의 차이가 중요한 동시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활동할 수 있다면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공적 노후의 경우엔 그와 더불어 연령과 교육수준, 가구 소득 등 전반적인 요인들이 어울려야 성공적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여가시간의 바람직한 활용이며, 이것은 자기 효능감과 자기 통제에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에 따라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삶의 만족도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자의 안정적인 경제상태가 될 수 있는 제반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지금보다 더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 가중될 수 있는 사회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공적연금의

며,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데 있어서 주요한 자원이 될 것이고, 앞으로 국민연금이 갖게 되는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급액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의 인식이 생기고 있으나 지금의 국민연금의 수급액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적은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액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고령자의 사회적 여가선용의 확대에 노후소득보장의 온전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성공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오로지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의 차이를 통해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수급자 간의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의 삶을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 수급자 사이에서 실제로 국민연금이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효과와 보완점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수급액의 차이는 가입기간의 차이일 수 있으며, 수급 받는 기간 또한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인 노후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둘째, 수급 대상자의 한계로, 본 논문에서는 국민연금 중에서도 노령연금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 외의 소득보장을 할 수 있는 방안(개인연금, 사적이전소득)도 함께 고려할 때에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의 삶에 미치는 효과도 살펴볼 때 차이가 보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인다.

**참 고 문 헌**

[1] 하춘광, “공적연금 수급노인과 일반노인의 삶의 만족도 관련요인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집, 제3호, pp.1-21, 2007.  
 [2] 석상훈, “공적연금이 노후의 경제적 삶의 미치는 효과,” 연금포럼, 제43호, pp.4-9, 2011.  
 [3] 이승신, “노후생활비 준비에 따른 연금 수급액의

- 만족도에 대한 연구: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 pp.137-152, 2012.
- [4] 이승신, “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제15권, 제4호, pp.43-60, 2012.
- [5] 권혁창, 이은영,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2호, pp.61-85, 2012.
- [6] 석상훈, 김현수, “중·고령자 은퇴만족도에 대한 연구,” 연금연구, 제3권, 제1호, pp.113-133, 2013.
- [7] B. L. Neugarten, R. J. Harvinghurst, and S. S. Tobin,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51, No.3, pp.229-239, 1961.
- [8] 김동배, 정규형, 이은진, “노인의 과거 노후 준비 정도와 준비유형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제58호, pp.325-352, 2012.
- [9] M. G. Chekola, *The concept of happines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74.
- [10] L. K. George, “The Happiness syndrome: 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issue in the study of social-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hood,” *Gerontologist*, Vol.19, No.2, pp.210-216, 1979.
- [11] 서말희, 유가효, “대구 근교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제12호, pp.29-41, 1999.
- [12] 박영례, “노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9권, 제1호, pp.237-258, 2005.
- [13] 홍영준, 이정훈, “노후준비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8권, 제4호, pp.91-110, 2014.
- [14] C. D. Ryff, “Successful aging: A developmental approach,” *Gerontologist*, Vol.22, pp.209-214, 1982.
- [15] 안현선, 김효민, 안진경, 김양희,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도와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3권, 제3호, pp.137-155, 2009.
- [16] J. W. Rowe and R. L. Kahn, “Successful ageing,” *Gerontologist*, Vol.37, pp.433-440, 1997.
- [17] J. W. Rowe and R. L. Kahn, *Successful ageing*, Random House, 1998.
- [18] 김미혜, 신경림,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5권, 제2호, pp.35-52, 2005.
- [19] E. J. Yeun, “Attitudes of elderly Korean patients toward death and dying: an application of Q-method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42, pp.433-440, 2005.
- [20] 김희주, 주경희, “한국적 성공적 노후척도를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1호, pp.125-158, 2008.

#### 저 자 소 개

유 지 연(Ji-Yeon Yu)

정희원



- 2008년 2월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10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2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관심분야> : 노후소득보장, 삶의 질